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2호 【루게 제 24910호】 주제104(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자

사회주의협동농에 모내기철이 왔다. 지금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전체 인민들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선의 제1세대 제1선창호이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경제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알뜰생산이 단순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키는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지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사회주의는 그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설있게 해 나갈수 있다.

올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여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레도 화답하고 당의 부름이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 톨숨 서슴없이 내내내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풍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를 잘 지어 당조직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우리 사회주의의 필승배성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뜻깊은 올해에 알뜰생산을 결정적

으로 높이자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모내기는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다. 풍요한 가을은 모내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여야 논벼 고장수확과 고수확을 높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당이 제시한 알뜰생산목표를 집행할수 있다. 오늘의 모내기전투야말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결구한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모내기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올해의 모내기는 레년에 없이 일어난 조건에서 진행되고있다. 계속되는 가을로 하여 나라의 물자원이 심히 줄어들어 모내기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서해북방지대의 하나인 황해남도만 놓고봐도 보 조수원까지 합하여 모내기에 쓸 물이 대단히 적다. 이런 조건에서 물결약형농법인 비영양단지모에 의한 제배면적을 전적으로 60%이상 늘리고 마른상태에서 땅을 파고 모를 낸 후 포기포기 물을 주면서 모내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협동농 어디서나 시기를 다루는 모내기전투에 어느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참다운 동지, 전우가 될 충성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 할 굳은 각오와 승고한 공민적자각,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모내기전투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농업전선에 올해 알뜰고지정령을 위한 총공격구령이 내렸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안고 총공격적인 열 앞장에서 용감하게 달려나가야 한다.

모내기철의 하루하루는 다른 때의 열흘, 백날맞잡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 매일매일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항일의 나날 피어린 격전속에서도 발을 갈고 씨를 뿌려 유격대에 식량을 보내준 소양정유격구 인민들과 전식량증산을 보장한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귀중하고 래일도 귀중하다. 한알한알의 쌀을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지키는 총공력으로 여기고 원수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모내기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모내기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배천군에서 비영양단지모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지난 시기보다 정보당 물소비량의 30%를 줄이면 서도 모내기결과와 같은 수확량을 최 고수확년도보다 700여%의 알뜰을 더 생산한 비결이 바로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데 있다.

최악의 왕가들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물문제해결이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물결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모내기성과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농기계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트랙트르운전수들은 기계화 초병된 공지를 안고 기대정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마른논씨매치기를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안악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비영양단지모에 의한 모내기를 기계화할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 농기구를 만조되도록 모든 시, 군농기계작업소, 협동농장기계화작업반, 수리분조들에서 이미 있던 모내는기계를 개조하고 더 많은 농기구를

을 새로 만들어 적극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분조관리를 창조하신 50돐이 되는 해이다. 농업근로자들이 공동경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의 요구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옮겨 적용하여 그것이 모내기전투에서 은이 나게 하여야 한다. 지난해 선천군 석화협동농장에서 700여정보에 대한 논씨매치기를 열흘동안에, 한달동안 진행하던 모내기를 한주일동안에 와닫 같은 비결의 하나가 바로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농기계, 농사조건을 먼저 보지 전에 계획을 믿고 주인다운 일본새로 결사전을 벌인데 있다.

모내기성과는 전적으로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농업전선에서는 아래단위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정악하고 도, 시, 군들의 모내기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물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관하여 협동농장에서 모든 농사

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물보장조건이 좋고 이른큰모와 영양맹상모, 영양알모, 영양단지모를 도입하는 시, 군의 농장들에서는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닫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의 요구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모내기용량이 최대로 긴장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물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일관하여 협동농장에서 모든 농사

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물보장조건이 좋고 이른큰모와 영양맹상모, 영양알모, 영양단지모를 도입하는 시, 군의 농장들에서는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와닫 끝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조직형태,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의 요구대로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모내기용량이 최대로 긴장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들격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약동하는 오늘의 시대는 낡은 틀과 형식주의에 매인 정치사업이 아니라 대중의 심금을 울리고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이 권위적인 정치사업을 요구하고있다.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농장방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모내기전투를 당적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협동농장일군들이 신심을 가지고 모내기전투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떠밀어주어야 한다.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는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도록 농기계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영농물자를 제때에 집중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며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농촌을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모내기용량이 최대로 긴장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모내기기간과 실적을 따지기 전에 마른논에 물을 충분히 주고 비영양단지모를 심어 모살이फल을 100%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모내기전투에서 협동농장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무겁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올해농사를 당일에 전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전업이 주체농법에 의거하여 정확히 책임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중요하게는 물공급지휘체계를 바로세워 모든 지역에 유격적으로 관계용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사지도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명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위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양과대의 건설사업사업소 지면내 계획은 공사 첫날부터 전투현장에서 이신작적의 사업기풍과 힘있는 지원으로 과충판과 자연박물관건설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릉래의건설사업사업소 기사장 허운성은 건설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확신적으로 제기하여 하면서 통이 큰 후방사업

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부원 리명철, 직장장 우영춘도 천년철의, 만년보존의 애국의 일념안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해가고있는 전투원들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갔다.

평양시인민보안군 교통지휘대 인민보안원들은 나라의 재부이며 선군시대와 더불어 같이 전해질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점인 중앙동물원을 더 잘 구획수 있게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여온 유원지총국 산하단위 부원 오운희는 중앙동물원개건공사장에도 많은 건설자재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안영일은 혁신의 불길높이 위훈을 창조해가는 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에서 일하는 궁지를 안고 중앙동물원 로동자들인 김향, 지방성, 로은정은 맑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의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근로자들은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을 잘하여온 유원지총국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11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업과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통산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책을 펼치시어 우리 청년들을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도를 지닌 당의 믿음직한 정치후배,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부대로 억세게 키워 주신 백두산철새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들이 적혀져있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청년운동방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추추면서 깊이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청년전진정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파시해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격식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하역 1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 대의원인 조선인민군 특군대장 김격식 보내시었다.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로씨야 방문을 마치고 귀국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일행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11일 특별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국제기게대에는 공화국기가 나뭇기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비행장에 서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경성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모스크바 5월 9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8일 크레믈린대궁전에서 올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로씨야

러방 대통령을 만났다. 석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김영남동지가 전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대통령에게 보내신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대통령에게 보내신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대통령에게 보내신 친서를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푸틴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거창한 창조의 회성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과학기술전당건설장

단숨에의 기상은 우리의 표대

축성전역에 격동의 시간과 날이 흐른다.
 솟구치는 벽체마다 두텁게 나뭇잎과 건물주변에서 무성하게 울려 퍼지는 기체회수관들...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내세우는 건설장은 그야말로 선군조선의 문명인 레일이 어떻게 앞당겨지는가를 보여주는 속도로 되고있다.
 무수한 철근들이 세워지고 수만대의 강판발들로 둘러싸인채 만장충을 향해 킬을 솟구치는 과학기술전당은 지금 곡선을 이룬 원자구조모양의 형성안그대로 그 용자가 확연히 드러나고있다.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지는 이곳에서 공사에 참가하는 군인건설자들은 걸음마다 어떤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하고있는 것인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외의 기수, 주력군단에게 오직 혁명적대고전에서 선도적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은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승리의 표대를 세워주었다.
 당의 결심은 우리의 실천이고 승리이다.
 모두가 1년여간 강산이 변화해 가는 단숨에의 기상을 떨칠 의지와 뜻을 품고있다. 이 중흥의 일념에 떠날때마다 축성에서 거창한 창조의 회성이 울려 퍼진 나날은 불꽃 수심일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부대장병들은 과학기술전당 총괄조공사량의 70%를 완수하는 혁명적 위업을 이룩해냈다.
 보통의 건설전투가 아니었다. 연전속전적 대건설전투의 한계 초월이던 웅대한 건설의 여의충과 맞먹는 아름다운 건설대상이었다. 필요한 건설기재와 자재소요량도 엄청났다.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긴급히 필요한 것은 1만 5천여톤의 휘발유와 10만여톤의 철근이던데다 그뿐이 아니다.
 20여대의 수직승강기와 수심대의 혼합기를, 작업능력이 큰 기중기들...
 그렇듯 방대한 건설기재와 공사자재가 최단기간에 전량 보장

될 수 있다는 담보도 없었다. 하지만 어려운 공사를 대상별, 날자별로 드림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이다. 령도자의 믿음을 받아안은 병사들은 마땅히 당에서 중시하는 건설사업을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불같은 일념이었다.
 그것이 선군시대 병사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기에는 이들은 공사목표부터 톤이 크게 내세웠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온 건설장에 나뉘었다.
 군인들의 정진력을 총괄할 수 있는 화신정기사업이 고조되는 속도에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사전에도 없는 말인 단기간의 능수들이 되었다.
 오직 공사기일을 생각하며 팔목이 시도록 철근공부에 뛰어 들었고 용접공들은 여러 시간이 지나도 쉬지않고 이어가며 혁신의 불꽃을 위임없이 날리었다. 폭잠에 들다가도 다시 일어나 돌격한다. 나쁜 습관으로 혼란을 생산을 추진한 병사들은 또 열 마다였다. 그런 속에서도 건설 속도는 의연히 더디었다.

공사량이 너무도 방대하고 건물의 층고가 높아감에 따라 발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축성전역에서는 사소한 침체도 있을수 없다.
 이런 의지가 온 건설장에 차고넘치는 속에 난관들과 불합리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방수선전차에 의한 선동이 고조되는 속에 시공단위별로 하루 밤사이에 경사발판들이 설치되고 부대장병들이 무거운 짐을 두어 어깨에 메고나섰다. 지휘관들도 병사들과 한숨이 되어 연공작업을 비롯한 모든 공정수행의 앞장에서 내달린 그 나날 산더미처럼 쌓였던 문제는 순식간에 바닥이 되고 매일같이 한개 열차편성분에 달하는 세멘트가 소비되었다.
 부대적으로 혁신적인 방도를 탐구도입하는 전투도 맹렬하게 벌어졌다. 지휘관들이 해당 단위 기술자들과 새로운 강판발치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에 모의시험이 거듭 진행되었다. 결과적인 거대량을 가지고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가 나오고 실천에 도 임하면서 건설장의 승승이 끊임 없이 높아졌다. 공사를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일부 구획을 맡은 단위에서 골조공사를 계속하는 비상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보람찬 그 나날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어떤 조건에서도 현장을 뜨지 않고 하나하나의 공정들을 치차처럼 맞물리기 위해 지상과 공중의 능수로 자랑될만한 기술들은 열마였으며 몸이 지쳐 쓰러지더라도 오직 공사계획수행만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대오와 박동을 함께 한 위훈자들은 또 열마였었다.
 축성전역은 조국수호의 결전장이었다.
 만장충을 승리의 고지처럼 여기고 시간을 앞당기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이런 결사투쟁의 불굴의 정진력에 의해 보기에 도 웅장한 새 건물의 골격은 지금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우렁치게 비추고있다.
 당의 부름이리만 몰라 볼수록 다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더 불어 과학기술전당은 머지않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첨단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평양시건설관리국 아래 여러 단위에서

평양시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맡은 축성인이다 리-3 건설장에서 어떤 다면적 가락이공사는 단 36시간동안에 결속되고 침강정공사와 함께 다 리상관공사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건설장적인 하부공사를 맡아 수행하면서 방대한 량의 다리공사를 리체적으로 추진하는 이곳 건설자들에게는 해공사를 기한전에 끝낼 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있다.
 축성전역은 조국수호의 결전장이었다.
 만장충을 승리의 고지처럼 여기고 시간을 앞당기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이런 결사투쟁의 불굴의 정진력에 의해 보기에 도 웅장한 새 건물의 골격은 지금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우렁치게 비추고있다.
 당의 부름이리만 몰라 볼수록 다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더 불어 과학기술전당은 머지않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최첨단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완성하면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새 공법들을 탐구하고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침강정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어지던 때 그 안에서 차오르는 물량은 시간당 1000여m³에 달하였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없었다.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마구잡이 합리적인 방도를 모색했다. 현실은 훌륭한 학교였고 대충은 선생이었다. 그들속에서 적지 않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현재 리용하는 굴착기 바가지를 개조하여 물이 들어차서 조건에 구애없이 굴착공사를 추진하는 의견이 골방하고 혁신적이었다.
 현장에서 즉시에 굴착기바자지를 개조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어 공사실현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처럼 어렵던 침강정공사는 불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게 되었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기발한 착상과 일본새로 건설속도를 높여나간 실례는 그뿐이 아니다.
 기동공사가 마감될 때 이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평양시 건설을 위한 1500여명의 프크리트

혼합물을 받쳐줄수 있는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버팀목이 세워질 지반도 든든해야 했고 현장이 비좁아 증기제들을 리용하기도 어려웠다.
 적은 목재를 가지고 공사를 진척시킬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일군들이 기술자들과 논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한가지 안이 나왔다. 다리상관을 떠받들 버팀목을 늘려서 쌓기 말고 대담하게 세워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다리상관의 중량을 버팀목이 받아낼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기발한 착상이 나와 공사에 적용되었다.
 하부공사를 위해 미리 준비한 목재를 깔고 그 위에 버팀목을 세우면 침하현상을 없앨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창조적지혜를 합친 결과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리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공사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혁신적인 공법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성과를 확대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은 비상한 공사속도를 낳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전 혁 철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축성과 중흥의 다리가 연결되는 새 인입다리건설전투장이다.
 『지금 우리 철도동계급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축성개발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철도성적으로 보장된 많은 대용자재를 다리공사에 리용하리니 모두들 성가다 있습니다.』
 알고보면 이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담찬 기상을 보니 우리들의 눈에는 다리상관이 똑똑 떨어지나가는 두 줄기케도만 안겨온다.
 그렇다. 당의 요구에 무한히 충실한 철도동계급이 펼쳐가는 전투적기상은 축성전역에 승리를 앞당겨주는 혁신의 기적소리가 되어 메아리치고있다.
 본사기자

실리보장방도도 구체적인 현실에 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2차버섯수확량을 늘인 비결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농장마을에 울리는 <바다 만풍가>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경제부문, 단위들에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생산기조소라든 어느 단위에서나 대 경쟁력특성에 맞게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짜고드는것이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특히 로동대상이 산림자원이 립업부문에서 이 문제는 자연지리적, 계절적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하여 더욱 중요하게 나간다.
 이렇게 봄 때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더 경쟁력생산에 높은 실적을 이룩하고있는 평안남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갈 드높은 열의

주체조선의 국력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제 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장을 돌아 보고

엄밀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 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성파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 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고귀한 유훈을

이런 축전은 그 어느때보다도 양양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불타는 의지 속에 우리 과학자,

속에서 마련된 이번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장건 일꾼들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으로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심장에 새기고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많이 이룩하였다. 축전장에 펼쳐진 전시대들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있었다. 대규모화학비료생산기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내용은 방대한 량의 메타놀생산공정확립과 관련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전시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는 우리의 귀견에는 이곳 지배인 공승일동무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기화학공업에 절실히 필요한 메타놀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기업소에 주신 유훈입니다.》 흥남비료소로 멀리서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다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불타는 의지를 안고 새로운 메타놀생산공정을 확립하고 그 운영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체와 열정을 다 바쳐나간 이곳 기술자들과 일군들의 투쟁모습이 눈앞에 선히 어려웠는지 되었다. 이어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시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러가지 도해들을 특색있게 꾸민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금속공학부 학부장 김철호동무를 만났다.

《우리 학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수철에 부지런히 적는 사람, 도해관내용을 손질하기나 사기기로 활용하는 사람들로 하여 전시대에는 발명여흥을 자르려 없었다. 어느 전시대를 찾아가도 이런 광경뿐이었다. 《축전장을 돌아보니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욱 비약할 우리 조국의 발전전망이 한눈에 안겨 오는 듯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심심 또한 배배해 집니다. 이번 축전기간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신의주화학공공장 작업장장 최철호동무의 심경이리라.

그에서이러라. 축전장을 나서는 사람들이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은, 격동하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듯 한결같이 흐르고있고, 이제 이들이 든든히 지켜서 일터마다에서 최첨단들의 불길, 새로운 기적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날것이다.》

강 철 용

《...10여년동안 저희들이도의 축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참가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도 해주시고 온갖 사랑과 믿음은 다 안겨주시었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끝내 참가제를 완성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한 기쁨과 보람을 금지 못하는 이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혀있었다.

자강명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천분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기 위해 탐구의 낮과 밤을 불같이 이어온 부부연구사, 어찌 이 둘뿐이랴.

그 어느 전시대에 가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이로 틀어쥐고 결사관철의 열정을 드세차게 일으켜온 축전참가자들의 뜨거운 숨결을 한껏 느낄수 있었다.

드림 없는 의지 - 최첨단들

새로운 전자기술제품개발장치, 구부림세기 등을 비롯한 기술적표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절삭공구도 내놓았습니다.》

이곳 교원, 연구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이 첨단 제품들은 수많은 참관자들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우리는 함경남도인민명원전시대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땀수 없었다.

소독수제조기와 그리용에 대한 도해만이 아니라 이 전시대앞에서 도 많은 사람들이 흥성이었다.

보기도 간편한 소독수제조기 옥류아동병 등 많은 단위에 도입되어 온 내고있었다니 정말 놀라움과 참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우리 학부가 이번 축전에 제안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물매방지 및 제기효과가 높은

소독수제조기는 이 소독수제조기는 소비전력이 10W이하이며 리용하기가 편리하여 소독수를 생산하는데서 매우 실리적이고 말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에서 제안한 대출력수선방동기의 질지표측정 및 원격조종체계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무선방동의 수자화를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장치체계를 구축하고 출력합성방향을 적용하여 방동의 출력률을 종전보다 2배로 높였을뿐 아니라 방동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개선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과로 만족할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첨단들과입니다. 당의 품속에서 다지고다진 지혜와 열정을 총출발시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더욱 자랑찬 성과로 보답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교원계정첨단들의 심장만이라. 세계를 앞도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열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격정에 더욱 뿔어오르는 마음으로 하여 축전장에 전시된 한결같은 성과자료들과 한결같은 전시물들을 정녕 무시할

불수 없었다.

모들분산형CNC장치를 제안한 함흥청년전기기술공창, 계룡주파수에 관계없이 전동기의 회전수를 안정하게 하는 618세멘트공창의 제안, 내화벽돌보다 훨씬 우월한 면적의 선-경량단열재벽돌을 내놓은 평북종합대학의 제안...

하나하나가 모두 과학전선의 전초병,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려는 각자 과학자, 기술자들의 끊임없는 탐구와 사색, 완강한 실천의 고귀한 결정을

제 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최첨단들과의 불길높이 세계를 향하여 과학기술전진모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축전은 앞선 과학기술을 전국적범위에서 널리 교류하고 보급하며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열의의 총결정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의의있는 계기였다.

이번 축전에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의 과학전선은 더욱 큰 발걸음을 내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과학기술공창의 날개를 활짝 펴고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신심과 활판, 열화같은 애국충정을 받들려 내 나라, 내 조국은 최후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더 빨라, 더 높이 비약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경철



높아가는 사회적관심, 활발한 새 기술교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회의 구조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느 전시대나 참관자들이 흥성이었다. 그만큼 이번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장에 전시된 모든 제안들이 특색있고 새로웠다.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과 관련한 성과들이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차광수신의 주제 1사범대학 연구자들의 성과자료만 보아도 그렇다.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를 옮겨심는데 유용한 식물생장활성제의 합성과 그 리용방법에 대한 참관자들의 관심이 류별나게 컸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만 있으면 아무때나 나무를 심을수 있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임의의 시기에 나무심기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여러 단위들에 도입해보았는데 심은 나무의 사물들은 90%이상입니다.

나무의 성장도 대단히 빨랐습니다.》

《어떤 식물이나 다 리용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지 농업생산과 화초재배에서도 효과가 아주 있습니다.》

이 식물생장활성제는 어떤 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까? 우리 단위에 받아들이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참관자들의 질문은 끝이 없을 상싶었다. 알고싶어하는것도 많았고 배우려는 열의도 대단했다.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제안의 내용도 물론 좋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수산기계연구소에서 내놓은 바다물살균기에 대한 사람들의 호경도 대단했다.

이 장치는 바다물을 살균할뿐 아니라 순수 바다물을 가지고 많은 량의 살균제를 생산하는 우리 식의 첨단설비로서 수산물 가공과 수산물실내양식, 어획물의 선도보장에도 효과있는것은 물론 무균화를 요구하는 모든 부문에서 리용할수 있는 우점이 있었다.

제안자와 무엇인가 진지하게 토의하는 사람, 옆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는 사람, 수철에 부지런히 적는 사람, 도해관내용을 손질하기나 사기기로 활용하는 사람들로 하여 전시대에는 발명여흥을 자르려 없었다. 어느 전시대를 찾아가도 이런 광경뿐이었다.

《축전장을 돌아보니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욱 비약할 우리 조국의 발전전망이 한눈에 안겨 오는 듯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심심 또한 배배해 집니다. 이번 축전기간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신의주화학공공장 작업장장 최철호동무의 심경이리라.

그에서이러라. 축전장을 나서는 사람들이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은, 격동하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듯 한결같이 흐르고있고, 이제 이들이 든든히 지켜서 일터마다에서 최첨단들의 불길, 새로운 기적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날것이다.》

강 철 용

* 영예의 특등으로 평가된 제안들 *

—식목과 약용생산공정의 무균화를 위한 정화공기조화 및 김질관리체계

김책공업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원장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 리현광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내놓았다. 이 정화공기조화 및 김질관리체계는 식료공정과 제약공업, 화장품공업 등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산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해, GMP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 체계는 지금까지 평양시버섯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10여개 버섯공장과 대약공창들, 식료공창들도 도입되었다.

—소프트코팅기의 개발과 운영체계의 확립

중앙정보통신국 국장 박사 리성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내놓은 제안이다. 이들은 단일한 망에서 유선봉사와 자로통신봉사와, 대체통신 등 다양한 정보통신봉사를 실현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망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게 개발하고 현존통신망과의 결합을 합리적으로 실현하였으며 우리 식의 과학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였다.

—원선형비동기전동기에서 2중원공급에 의한 회전수 안정

이 제안은 618세멘트공창지연된 박사 기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내놓은 것이다.

세멘트링카분쇄기를 둘러싸는 데 쓰이는 고압전선형비동기전동기에 2중원공급 속도조종장치를 개발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리한 전기조건에서도 분쇄기의 회전수를 요구되는 값으로 일정하게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게 한데 의의가 있는 제안이다. 2중원공급 속도조종장치를 도입한 결과 시간당 생산량을 2배로 높이고 제품 량 전력소비비를 종전보다 절반으로 낮추었다.

—미수침정질법에 의한 휘발유생산

문화화학공창 부기사장동무인 홍득남, 김명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내놓은 제안이다. 공창에서는 종전의 정질휘발유생산공정에 없었고

이 제안에 기초한 정질휘발유생산공정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휘발유생산량을 늘이고 액화가스를 대량생산하였으며 생산공정을 안정하게 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열원국과학원 자동차화원연구소 실장 장철출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내놓았다. 과학자들은 현상동계급과 차조적협조를 강화하여 통합 자동차화원계를 구성하는 과정에 이 분야의 여러가지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의 믿음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그리하여 연간 압연공정을 이루고있는 설비들과 전민적인 공정에 대한 중흥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공장, 기업소통합생산관리 체계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차공학부 학부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김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제안이다.

이 체계는 컴퓨터통합생산체계가 실현된 공장, 기업소의 생산공정자동화체계와 경영관리 지원체계를 정보적으로 통합하고,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최량화를 실현하며 장악지휘하는 관리체계를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과학자들은 이 체계를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비롯한 여러 식료공창에도 도입하여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명희

네시아, 헬남, 중국 대 북의 회사들이 출품한 전시물들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다외무성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민주대창작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타이의무성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동상을 찾아 11일 타이의무성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다외무성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대표단성원들은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동상을 찾아 11일 타이의무성 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교육자 부부의 걱정

지난해 11월 27일 합동시 해인구역에서는 운동 1동 39인민반에서 사는 교육자부부인 김명철, 박명숙동무네 딸의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의 축하속에 진행되었다.

그날 첫날은 물론 결혼상도 성의껏 차려주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신랑, 신부에게 수줍게 가지는 가정용품들과 부엌예간들을 마련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었다.

사실 제대군인이며 유치원교양원인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교육자부부는 기쁨도 컸지만 걱정도 없지 않았다. 자식을 데려갈 내세우고싶은것은 부모들도 두의 심정인지라 혹시 남들보다 적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다. 결혼식이 있기 며칠전부터 교육자부부의 집을 찾아 제기되는것을 구부적으로 알아본 구역의 일군들은 수습년간 후

대교육사업에 전심해온 교육자 가정을 도와주는것은 자자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그들 부부의 딸 결혼식준비에 두팔걸고 나섰던것이다.

하기에 그날 교육자부부는 걱정에 겨워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어머니같은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후대교육사업에 한몸바쳐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라이외무성대표단 도착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돈 뿌라맛위 나이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의무성 대표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박영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제18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평양 5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8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되었다.

전람회개막식이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로두철내각부총리, 리룡남내각장, 김인철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경제부부총리 일군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의외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박영식 조선국제전람회 사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오봉철 대외경제성 부상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 제18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람회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체계의 믿음성과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으로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람회기간 참가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교류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경제무역협조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와 뉴질랜드, 도이쉴란드, 로세야,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캄보자, 프랑스, 폴스카,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인도

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캄보자, 프랑스, 폴스카,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인도

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캄보자, 프랑스, 폴스카,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인도

깊은 인상을 남긴 교직원체육경기 동대원 구역에서

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문신, 동신소학교들과 대신초급중학교, 새살림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교직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여 자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경기장에 모여온 수많은 관중의 환열기도 대단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문신, 동신소학교들과 대신초급중학교, 새살림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교직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여 자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경기장에 모여온 수많은 관중의 환열기도 대단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문신, 동신소학교들과 대신초급중학교, 새살림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교직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여 자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경기장에 모여온 수많은 관중의 환열기도 대단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문신, 동신소학교들과 대신초급중학교, 새살림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교직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여 자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경기장에 모여온 수많은 관중의 환열기도 대단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신수들의 열의는 최절정에 달하기도 하였다.

문신, 동신소학교들과 대신초급중학교, 새살림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교직원들이 열광적인 응원을 하여 자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경기장에 모여온 수많은 관중의 환열기도 대단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양양원 체육열의속에 경기마다에서 불만 한 장면들이 련이 펼쳐졌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중학교부문 녀자배구경기 동대원 구역이 승리하였다.

자주로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속에서도 자주적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있게 나아가고있다. 남로 강토부도해지는 미제의 군사적합동과 침략책동에 의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자그마한 혼들림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의 희망의 등대라 되고있다. «이북은 자주적인 관한 문제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모르는 존엄높은 나라, 필승불패의 강국»

«선군정치로 위력떨치는 이북은 강력한 자주의 성세, 평화수호의 보루, 인류의 미래»

«이북은 자주와 존엄을 결합하는 이남민중의 희망의 등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북소리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기상을 통해 한없이 민족적자위와 자부심을 새겨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남북민심이 비껴나고 있다.

대전의 한 정지화교수는 제자들에게 «북은 선군의 총대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부침전쟁도발책동을 쳐잡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북이 자주국방의 무쇠주먹을 역세계 버릴 때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엄높고 평화로우며 강성번영한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을 지켜주는 정신적보검이다.

미국이 제야무러 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패권주의의 더러운 야심을 실현하려고 책동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북은 선군정치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 북에는 그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전도 쳐물리칠수 있는 강위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어 북은 미국의 그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나가고있다.»

남조선정치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사도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며 자주적 기상을 떨치고 국위를 선양하고있는 나라는 선군정치가 펼쳐지는 이북뿐이다. 이북은 자립경제로 부강하고 자위적국방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튼튼히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으로 민족정통성을 내비치는 존엄높은 국가로 공인되고있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한 종교인은 동료들과 만난 자리에서 «막강한 국력으로 지켜지고 떨치지는 이북의 존엄은 황금으로도 살수 없고 원자탄으로도 없앨수 없는 그리고 그 어느 민족의 자랑과도 비교할수 없는 인류최대의 존엄이다.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세로 하여 존엄수호의 신비경을 펼쳐보이고있는 이북은 그야말로 존엄의 왕국이다.»고 자랑찬을 금지 하였다.

남조선자주 존엄높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의 정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민심의 광장»을 펼쳐 놓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정치, 선군정치를

한없이 격찬하고있다. 부산에서 사는 한 퇴직교수는 어느날 자기 집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외세의 눈치만 살피며 비위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남조선당국의 비굴한 태도를 비난하고 «북은 이와는 정반대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은 언제 보아도 당당하다. 누구의 구속을 받거나 눈치를 보는것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자기가 결심한대로 실천하는 진짜로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한다. 북의 자주정치가 정말 부럽다. 북의 당당한 모습에서 민족의 긍지를 느낀다.»

대구의 한 대학교수도 제자들에게 «뛰어난 영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국력을 키울수 없고 결국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킬수 없으며 일개인의 운명도 건질수 없다. 이 진리는 복잡한 전제과등과 암살책동에도 끄떡없이 나아가는 이북의 현실에 의해 확증되고있다. 위대한 영도의 자주정치, 선군정치가 있어 북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으로 되었고 우리 민족은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존엄높은 민족으로 되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쳐놓았다.

남조선에서 선군정치를 소개 선전하는 인력나눔제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속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힘의 원천은 북의 선군정치», «선군정치야말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조선반도평화의 담보», «선군정치와 우리 운명» 등 선군정치를 칭송하는 글들이 계속

오르고있다. 얼마전에는 남조선의 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먹을 끌었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운동세력들은 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소민족의 골매를 벗어던지고 강대국의 강권과 횡포를 100% 자력으로 짓부수는 이북동포들의 자주적기상을 지켜보며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뜨겁게 불타고있다. 세계는 북의 선군정치를 두고 «한 민족만이 아닌 행성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만민족의 정치»로 찬양하고있다.»

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정치, 선군정치는 남북인민들의 하여금 결세의 위인인 정에하는 김정은원수님신대 계에서 조국도 빛나고 민족도 빛나며 조국통일을 이최고 반드시 이루어나오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고있다.

«이북부터 세인이 부러워하는 존엄과 기상을 안고 밝고 창창한 앞날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영도자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았기때문이다. 이북은 누구의 위협이나 압력에 타협하거나 굴복해본적이 없다. 그리고 지도도 않은 이북이 대국적당당히 맞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주성을 지켜올수 있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자주정치의 결과이다. 이북은 그 어떤 대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이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이 동료들 앞에서 한 이 말을 통해서도 자주정치의 확신인신 경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남북인민들의 한없는 흠모심, 민족자주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위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주시고 반미대결전을 진두에서 이끌고오셔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튼튼히 수호해주고계신다고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다.

인론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결단의 담력, 탁월한 전략에 의하여 조성된 오늘의 정세국면에 대하여 «북이 미국의 덤미를 잡아 끌고가는 형세», «북이미국에 정치적항복과 군사적항복을 선포할것을 요구하며 강력박제하는 형국»이라고 하면서 «열강들을 놀래우는 큰 사면들을 편이여 엮어가는 김정은영도자의 정치적지도력과 판단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탄복을 금지 못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떠나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생각할수 없고 조국통일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바로 남북경계의 가슴마다에 천원바위처럼 굳게 자리잡고있는 현실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내주는 핵무기 천출위인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도능력을 높이 바라고 선군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라영국

매국역적행위가 낳은 필연적산물

미국과 일본국익이 얽매진 《북의 핵 및 란도미 씨일능력강화》 등을 구실로 벌여놓은 《미일방위 협력지침》 개정늬움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이 조성되고있다. 《미일방위 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제침략군이 벌리는 모든 군사작전과 훈련에 참가할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군부대로 한정되었던 작전영역도 전세계에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개성이 아니라 개약으로서 일본의 군사적결핵강화로 반공화국압살과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과 상권을 등에 업고 제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공모결락의 산물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더욱 증대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게 되었다.

대우기 문제로 비호되는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선반도에 배치된 것일수 있을 것인 사실이다.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가 조선반도유사사시는 물론 아무때나 미군과의 군사적협력을 구실로 피퇴환을 무시하고 남조선에 제멋대로 기어들어 군사작전을 벌일수 있도록 하고있다.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함부로 통락하는 이런 도발적인 침략전쟁문서가 꾸며진것은 미일상권들에 대한 남조선피퇴환의 사대매국정책과 더불어 친미친일굴종행위의 필연적결과이다.

피퇴환이 아무리 목을 빼들어도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당국을 허수아비 《정권》, 주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미국 남조선과의 이른바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남세를 피우고있는것은 피퇴환을 북침전쟁하수인으로, 대아시아침략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한 출책일뿐이다. 일본반동들이 남조선과의 《관계복원》을 떠들고 있는것도 피퇴환을 업어넘겨 피악에 찬 파기책들을 덮어버리고 조선반도에서의 제침의 길을 열기 위함대 그 목적이 있다. 이번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개약도 그것을 말해준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늬움과 관련하여 피퇴환이 일본 《자위대》가 남조선에 들어올 경우 저들의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고 애걸부절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은 《3국의 주권중중》이라는 실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삽입하는것으로 대처해버리고 말았다. 미국과 일본이 피퇴환을 얼마나 시끄럽게

여기고 업수이보며 허술하게 대하였으면 이렇듯 오만방자하게 늘어났겠는가. 이로써 피퇴환이 미국과 일본의 철저한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다는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라대 피퇴환이 벌이는 미제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었지만 현 피퇴보수정권처럼 대대대일수중에 환장해 날뛰는 일개자 없었다.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에 쩌들대려 쩌들 현 피퇴환정세력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군사주권을 미국에 영원히 넘겨버렸으며 지금은 상권의 강요에 따라 고고도요격자일 《씨드》를 끌어들이려 함으로써 남조선을 통틀어 미국의 핵전쟁터로 내밀고있다.

현 피퇴환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본반동들의 역사와 국과 독도강탈책동을 비롯한 군국화, 제침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것도 남조선정권자들의 추악한 대일굴종자세, 망신스러운 공우외교와 매여 놓고볼수 없다. 그에 대한 내외의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는데도 피퇴환국은 오히려 과거사와 안보문제에서의 그 무슨 《분리대응》을 떠들며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결락을 강화하고있으며 지어 미일남조선 《정보공유약정》까지 체결하는 망상을 부리었다. 이것은 친일적이 피퇴환정식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매국행위의 극치이다.

피퇴환이 꼬물한 한 민족적존엄과 자존심도 없이 미일상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빌붙고 동족압살을 위한 《대북공조》나 구걸하고있으니 미국과 일본이 남조선의 《주권》이 고 제편이 되고있어 마구 짓밟는 침략전쟁문서도 거러놓고서 꾸며내게 된것이다.

조선민족의 백년수적인 일본으로부터 과거피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권을 받아낼 대신 갈수록 굵진거리며 군국주의제침략야욕을 부채질하는 이런 매국역적의 무리를 그대로 두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수처와 모욕을 면할수 없고 우리 민족이 핵전쟁의 위험에 던져넣어놓을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피퇴환수요자의 사대매국정책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친미친일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대적투쟁에 총력기해나설 때 굴종과 치욕의 역사도 끝장낼수 있고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도 수호할수 있다.

심철영

민족을 등지고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은 존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제미단 끝에 범난다는 말이 있다.

사기와 협잡, 부정선거로 《정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파초주제와 매국반역을 일삼던 피퇴보수매당이 지금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중사건으로 하여 졸경을 치르렀다.

성완중사건의 주되는 관계자인 피퇴보수정권 리원수가 더는 빠질 구멍이 없어 끝끝내 사임한것으로 하여 《최단명총리》의 오명을 쓴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은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대표선거경쟁당시 성완중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출연시킨 경남남도지사 홍준표가 리원수의 뒤를 따르고있다.

그는 성완중이 자살하면서 남긴 글썽에서 자기 이름이 발견되었을 때 «대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니 하며 펴백 뛰었다가 하면 자기는 성완중을 한번 피독 분석박에 달라고 시치미를 떼었다. 하지만 경남기업의 전 부사장을 비롯한 중인들의 진술에 의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것이 폭로되었다.

남조선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2011년 6월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직접 홍준표

의 측근들과 몰래 만나 비밀리에 돈을 넘겨주었다. 활구영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 전술적방법은 사전에 흥준표와 자교합동으로 약속한것이었다고 중인들이 실트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흥준표가 《한나라당》전당대회에 비릇하여 여러 기회에 성완중과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급해있는 흥준표는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느니, «양심롭고 자살하면서 남긴 글썽지가 올라가 되며 목을 죽인다.»고 느 하고 아우성을 쳤다. 한편 그는 보좌관들을 동원하여 성완중의 측근들에게 전하로 협박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흥준표가 이제 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이미 흥준표의 수석보좌관을 비롯하여 그의 측근인민들대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있다. 그에 이어 흥준표도 검찰의 호환을 받았다.

흥준표보다 급한 처지에 놓인것이 아니다. 성완중이 자살하기 몇시간전에 청와대 집시실장 김기춘에게 자기의 전 부서에서 그와 전화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나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 청와대 비서실장 리명기가 최근 한해사이에 성완중과 무려 140차례에 달하는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성완중목록》으로 알려진 글썽에서 이름이 오르면 피퇴환정권의 측근 8명의 부정부패피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현 피퇴환정세력이 성완중사건이 확대되면서 불안해하는 보다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건이 점차 지난 2012년에 있는 《대통령》선거자문문제에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 의하면 18대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정남기업에서 수억원의 현금이 현 피퇴환정권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되었다. 성완중사건도 자살하기 직전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집권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에게 여대의 자금을 십계버쳤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조직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당무조정본부장 등 선거대책위원회의 본부장을 하던자들이 성완중이 자살하면서 남긴 글썽지에 돈을 받은것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사실은 많은 자금이 현 집권당의 《대통령》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을것이라는 추측을 낳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론들은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응당 현 집권자의 《대통령》

선거자문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도적질에 이름이나 돈도 부패정치는 남조선에서 파국상태에 빠지고있는 보수매당의 파멸치고 추악한 몰골이 날이 밝혀지자 민심의 분노는 더욱 치솟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청와대가 지휘하는 검찰수사는 성완중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수 없다. 살았다는 전력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 야당인사는 현 집권자가 마음아닌 《성완중사건》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가 특대형부정부패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가 판관과 금권을 총동원한 부정선거로 막친된 판에 성완중사건으로 저들의 《대통령》선거자문문제에 말장 드러나면 그 후파는 보수 《정권》의 완결정점으로 이어질수 있다. 사태가 갈수록 저들에게 불리하게 번져지는데 오금이 저려나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정권연속》이 워니 하는 당직않은 껌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 야당의 요구를 회 응남 못할 죄악의 대가를 단단히 치를 때가 되었다.

본사기자 은정철

공식석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궁지에 몰린 보수매당은 지금 성완중사건수사의 방향을 무로현 《정권》시기에 있는 성완중에게 대한 특별사면문제에 둘러져버리고 비렬하게 책동하고 있다.

집권자까지 나서서 성완중에게 대한 특별사면이 부정부패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특별사면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고있다. 성완중사건으로 소란한 사회여론의 초점을 특별사면문제에 쏠리게 하려는 교활한 출책일것이다.

하지만 남로 유지한 수범이 현 피퇴환정권의 최측근들이 모두 걸러진 성완중사건을 덮어 버릴수 있었는가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회의심을 표시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인론들은 성완중사건야말로 현 집권정세력에 있어서 결코 쉽게 해결수 없는 최악의 위기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껏 피퇴보수매당이 권력을 휘두르며 얼마나 못짓들을 많이 하였는가, 부정부패행위는 들쭉치고 파초주제와 반동일제 등 이 반무리들이 지은 죄악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이제는 피퇴보수매당이 그 응남 못할 죄악의 대가를 단단히 치를 때가 되었다.

본사기자 은정철

◇ 지금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현 피퇴보수매당의 퇴진을 부르짖는 인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있다.

미철정 서울에서 《끝내자 박근혜》의 구호말에 대규모집회를 연 수만명의 노동자들과 각계층 운동은 《재벌경제, 썩은 세상 로동자가 살아야, 투쟁!》을 목격했 웨치며 반역 《정권》을 울분내 넘쳐 단죄규탄하였다. 연단에 나선 민주로총 위원장은 «민생은 파탄났고 서민들과 로동자들은 못살겠다»고 한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패한 《정권》의 제물이 되고말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중의 총열기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열변을 토하였다.

남조선의 그 어디를 가나 반역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이런 증오와 격분은 한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있다. 그야말로 온 남조선 땅이 반역 《정권》 퇴진투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 남조선 각계의 대중적인 반역 《정권》 퇴진투쟁은 현 피퇴환정세력의 극악한 반민적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그들을 기만 우롱하면서 독재와 폭압으로 권력을 유지해가려는 피퇴환정세력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남조선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성완중사건이 보여준바와 같이 피퇴보수매당은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집권유지에만 눈이 어두워 허위와 기만, 독단과 전횡,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았다. 피퇴환정세력이 근대대중을 더욱 더 탄압으로 몰아넣는 년극을 해오며, 로동시장계약 등 반인민적약정에 근거 쓰고 매달리고있는것도 그들의 반역정책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실을 통하여 피퇴환정권이 임버처칠된 때부터 《경계민주화》니, 《서민경제》니 하는 공약들이 다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파멸적인 거짓말이었다는것이 명백히 실증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피퇴환정세력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시행명안》이라는

반역 《정권》의 파멸은 역사의 필연

것을 들고나와 희생자들에게 두벌죽음을 가하고 유가족들을 모독하였으며 그에 항거하는 평화적시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야만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퇴환의 반인민적약정에 격노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끝내자 박근혜》의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민심을 거역하고 인민을 반역하는자들에게 처해질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다.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는 인민들의 거세한 반 《정부》 투쟁에 당황장조한 피퇴환국은 위기에 시위자들에게 최루액, 물대포까지 쓰어대면서 폭압에 피는이 되어 날뛰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파멸의 운명에 처한 자들의 단발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파초주제와 같은 결코 만능의 통치수단으로 될수 없으며 그것은 독재자들의 멸망의 시간만을 앞당길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초민주화투쟁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영웅적인 4.19 인민봉기와 광주인민봉기, 10월인민항쟁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독재 《정권》의 광란적인 폭압을 맞받아 갈함없이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전열은 살아 있다. 5.1절을 계기로 벌어진 항의투쟁등이 거세한 시위자들은 피퇴환정세력이 방패를 두드리며 야수처럼 날치고 최루액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라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역투쟁을 기어이 청산하고야말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뚜렷이 파시하였다.

정치는 인간다운 자주적삶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편에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가로막을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건진항쟁의 불길에 새겨져 지쳐올것이며 그에 도전하는 반역매당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하는 《시행명안》이라는

제기조차 될수 없다.

인문문제는 의세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인민의 머리에서 피어날것을 막고자 하는 남조선에서 심각한 제기되고있다.

이제 피퇴환정권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추모집회와 시위투쟁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5.1절을 계기로 초초적인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로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물대포까지 퍼붓도록 하였다.》고 수작질한면서 그의 시급한 책계를 부채질한것도 피퇴환정권의 입김이 있었기때문이다.

피퇴보수매당의 《북인권법》 조작성들은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그것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만드는 늬움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 《북인권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야당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다고 한다.

이것은 《북인권법》 조작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피퇴환정세의 물결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인민대중이 정권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참담하게 행사하고 자주적인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문문제란 애당초

을 등진 반역투쟁매당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는 남조선에서 심각한 제기되고있다.

이제 피퇴환정권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추모집회와 시위투쟁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5.1절을 계기로 초초적인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로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물대포까지 퍼붓도록 하였다.》고 수작질한면서 그의 시급한 책계를 부채질한것도 피퇴환정권의 입김이 있었기때문이다.

피퇴보수매당의 《북인권법》 조작성들은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그것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만드는 늬움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 《북인권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야당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다고 한다.

이것은 《북인권법》 조작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피퇴환정세의 물결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인민대중이 정권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참담하게 행사하고 자주적인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문문제란 애당초

본사기자 장윤남

《박근혜를 그대로 두면 사회가 망한다》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가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결성명에 대한 피퇴환당의 탄압수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작성으로 악명높은 경기자방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6일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단결성원 남창우를 《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긴급구금행위했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최근 성완중사건과 《세월》호참사법 《시행명안》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해버려 나기 위해 벌인 탄압수동이라고 깎박했다. 그들은 현 《정권》의 반민적책, 반로일제정책가 어지없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자주통일운동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기자회견문이 광동되었다. 회견문은 《세월》호참사, 성완중사건, 민생파탄으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악습으로 하여 곳곳에서 《정권》 퇴진 구호가 쏟아져나오고 《박근혜를 더이상 그대로 두면 사회가 망한다.》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심과 하나가 되어 투쟁을 벌려온것이 바로 코리아연대라고

하면서 남창우에 대한 불법적인련행은 단결에 대한 보복탄압이라고 단결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그 파멸은 결코 피할수 없다고 회견문은 강조했다.

◇ ◇

남조선의 《국민일보》에 의하면 《세월》호참사법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 박대준이 5일 청와대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피퇴환정권을 괴멸, 야수로 라인하고 단죄하였다.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법 《시행명안》으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작정했다고 비난하였다. 이 《시행명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각계층이 거리에서 싸우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고 지적하였다.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있지 않고 지금껏 《대통령》으로 알지 않았다고 회견문은 밝혔다. 그것은 박근혜가 정보하였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부정선거개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있지만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인민의 모습에 아닌 철면피회한 괴물의 모습을 보여왔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나부터 조사하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박근혜는 분노한 민중의 손에 끌려버려야 전에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같은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북인권법》에 깔린 흉악한 대결기도

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여 반공화국배라살포에 미쳐날뛰는 인간쓰레기들을 제정적으로 지원하며 그 무슨 《인권기록본》을 만든것을 설치하고 《북인권법》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이어조사한 《북인권법》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통일》의 총인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규탄대박을 받았다.

달려진것처럼 인간쓰레기들이 피퇴환정세의 부추김에 버려지고 있는 반공화국배라살포소동은 가뜩이나 약화된 북남관계를 일촉즉발의 전진정경으로 몰아가는 중요한 하나이다. 생명이 천에해가 대치하고있는 군사부계선일대에서의 배라살포가 부장총동을 이어지고 그것이 전면전경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피퇴환들은 반공화국배라살포를 《표현의 자유》라 워니 하고 비호부둔하면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을 제정적으로 공공연히 지원하기 위해 《북인권법》 조작성동에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있다. 너무나 많은 거짓자료들을 꾸며내어 우리의 최고총장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 모략과 음모책동으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는것으로 《세계통일》야망

을 실현하기 위한 피퇴보수매당의 범죄적수입이 《북인권법》에 그대로 비껴있다.

이 《법안》에는 피퇴환정부에 《북인권법위원회》라는것을 두고 그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우리와 접촉하는 단계들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도 없는 《북인권법》 문제를 여론화하는것이 목적인 《북인권법위원회》라는것이 무엇인 권고하고 무였을 부추겼는가 하는것은 불분분한 일이다. 피퇴환당은 《북인권법》 문제라하는것을 계속 꾸며내면서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부추김은 단계들이사의 협력과 교류를 모조리 차단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퇴환들의 《북인권법》 조작성들이 《인권법》의 간판위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세계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보수매당이 조작성하는 《북인권법》에 대해 《남북관계에 사망선지령을 내리는 법안》, 《대북 배라살포 지원법》, 《대북과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문문제란 애당초

《북인권법》에 깔린 흉악한 대결기도

을 실현하기 위한 피퇴보수매당의 범죄적수입이 《북인권법》에 그대로 비껴있다.

이 《법안》에는 피퇴환정부에 《북인권법위원회》라는것을 두고 그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우리와 접촉하는 단계들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도 없는 《북인권법》 문제를 여론화하는것이 목적인 《북인권법위원회》라는것이 무엇인 권고하고 무였을 부추겼는가 하는것은 불분분한 일이다. 피퇴환당은 《북인권법》 문제라하는것을 계속 꾸며내면서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부추김은 단계들이사의 협력과 교류를 모조리 차단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퇴환들의 《북인권법》 조작성들이 《인권법》의 간판위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세계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보수매당이 조작성하는 《북인권법》에 대해 《남북관계에 사망선지령을 내리는 법안》, 《대북 배라살포 지원법》, 《대북과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문문제란 애당초

을 실현하기 위한 피퇴보수매당의 범죄적수입이 《북인권법》에 그대로 비껴있다.

이 《법안》에는 피퇴환정부에 《북인권법위원회》라는것을 두고 그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우리와 접촉하는 단계들의 활동을 직접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도 없는 《북인권법》 문제를 여론화하는것이 목적인 《북인권법위원회》라는것이 무엇인 권고하고 무였을 부추겼는가 하는것은 불분분한 일이다. 피퇴환당은 《북인권법》 문제라하는것을 계속 꾸며내면서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부추김은 단계들이사의 협력과 교류를 모조리 차단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퇴환들의 《북인권법》 조작성들이 《인권법》의 간판위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으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고 《세계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보수매당이 조작성하는 《북인권법》에 대해 《남북관계에 사망선지령을 내리는 법안》, 《대북 배라살포 지원법》, 《대북과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문문제란 애당초

을 등진 반역투쟁매당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였는 남조선에서 심각한 제기되고있다.

이제 피퇴환정권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유가족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추모집회와 시위투쟁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5.1절을 계기로 초초적인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로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물대포까지 퍼붓도록 하였다.》고 수작질한면서 그의 시급한 책계를 부채질한것도 피퇴환정권의 입김이 있었기때문이다.

피퇴보수매당의 《북인권법》 조작성들은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그것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만드는 늬움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 《북인권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야당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다고 한다.

이것은 《북인권법》 조작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피퇴환정세의 물결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인민대중이 정권과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온갖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참담하게 행사하고 자주적인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문문제란 애당초

본사기자 장윤남



현 피퇴환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